

호황경기 장기지속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은 넉넉한 연휴로 느긋한 고향의 향취를 맛볼 수 있는 한 때였다. 하지만 그토록 무덤고 가물었던 지난 여름철에 비하여 알알이 익어가는 들녘은 보기만 해도 풍성함을 느끼게 하였으나, 산골의 집집마다 자가용이 들어선 모습은 아름다운 농촌의 정서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민 정서를 살찌우게 하는 보금자리요, 아름다운 고향이어야 함을 다시금 느껴본다.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농촌, 농민을 위로하는 그러면서 현정부를 비호하는 유인물들이 열흘이 멀다하고 산더미처럼 화물차에 실려온다. 이는 비단 농촌뿐 아니라 시·군을 통한 행정기관에 충분히 배포될 터이고 그런 자금은 또한 막대하리라. 현정권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백번 천번 외친들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한 번의 실천에 비할쏜가?

홍보에 돈 쓰지말고 묵묵히 실행한다면, 홍보 아니라도 신임을 받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농촌 인구가 적다고 깔보지만 농촌 출신 아닌 도시인이 얼마

나 되는가? 농촌이 불편하면 도시가 편할 수 없으며 공산품 수출하여 경제부국이 된다한들 황량한 이 땅에서 무슨 낙이 있으리? 어디 낚시할 곳이 있겠으며 쾌적한 전원풍경을 음미할 수 있겠는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석유로 부를 누리는 중동지방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의 삶이 과연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2. 돈육 수입억제 건의 무시

본회는 지난 9월초에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또다시 4천톤을 추가로 수입·발주 '94년도에 총 2만톤을 수입하게 된다. 금년 여름철에 극심한 더위로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한 처사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양돈산업을 위축시키고 양돈농가를 감축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이며, 늘어나는 소비를 충당치 못하여 수입량을 늘려가는 악순환이 전개될 것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다. 계열화다, 양돈단지 조성이다 떠벌이지만, 단지조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원인의 대책마련에 힘써 주지는 못하고 홍보는 멋들어지게 해 대고 있는 것이다.

66

8월의 사료생산량은
7월에 비해 늘어났지만 육성돈과
비육돈 사료는 7월에 비하여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을 볼 때, 역시 10월의 출하물량의
부족상태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며, 수입육의 방출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될 것이지만 수입육도 충분한
물량확보가 못되는 실정으므로 양돈경기는
당분간 호조로 지속되어질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99

'95년도 돈육 수입 쿼터량은 2만2천톤이다. 그러나 금년식으로 수입이 전개 된다면 그 물량을 얼마나 초과하게 될지…….

3. 불안속의 호황유지

수입 개방의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될 '97년은 2년 남았다. 지금 양돈의 경기가 불황이라면, 그런 와중에도 뒤통이 버티어 나가게 된다면 개방시의 타격은 그래도 덜할 것인데, 지금 이처럼 호황 국면으로 유지되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를 연상하게 된다. 어느날 갑자기 폭풍한설이 엄습할 때 온실밖으로 내놓은 추위에 내성이 없는 화초들은 더욱 냉해를 받기가 쉽다는 맥락과 상통함을 느낀다. 요즘 새로 양돈을 하겠노라고 문의해 오는 사람이 종종 있음

을 볼때 어린 새끼는 더욱 타격이 심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

금년 7, 8월의 무더위는 돼지의 번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열대야현상의 지속에 사람도 돼지도 지쳤고 식욕을 잃었으니, 임신돈들이야 말해 뭇 하리요. 그래서 분만하다가 어미의 허약으로 젖이 안나오고 폐사되고 자돈도 따라서 손실을 보게된 것이 예상외로 많다는 중론이다. 그러므로 내년 2월은 양돈시세가 나뻐던 전례가 깨어지는 '95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4. 양돈경기 계속 호황

추석이 지나면 서서히 내림세를 나타냈던 것이 우리나라 양돈 경기의 패턴이었지만, 금

년의 경우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질 조짐이 짙다. 8월의 사료생산량은 7월에 비해 늘어났지만 육성돈과 비육돈 사료는 7월에 비하여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을 볼 때, 역시 10월달의 출하물량의 부족상태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며, 수입육의 방출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될 것이지만 수입육도 충분한 물량확보가 못되는 실정으므로 양돈경기는 당분간 호조로 지속되어질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추석전 2천7백원대였던 것이 추석후 2일간 하향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한선(14만5천원)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그라프는 생략한다. 